

북한, 효율성 높은 살충제 · 제초제 개발

북한의 조선과학원 함흥분원 유기화학연구소가 최근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 새로운 살충제 및 제초제를 연구 · 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11월22일 보도했다.

평양방송은 “단분자 기름막을 이용하면 논벼에 치는 살충제의 사용량을 종전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으며, 새로 개발된 살초제(제초제)는 모를 낸 다음에 한 번만 사용해도 잡초를 말끔히 잡아 없앴다”고 소개했다.

또 “새로 연구 완성한 벼종자 소독제도 생산원가를 낮추고 사용이 편리해 농업 생산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23>